

육안소견상 정상인 대장점막에서 색소내시경을 이용한 선종의 발견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내과, *병리과

이준행 · 김정욱 · 조용균 · 박창영 · 손정일 · 전우규 · 김병익 · 조은운*

연구목적: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대장암의 전구병변의 하나인 비용종형 선종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. 본 연구는 내시경검사상 육안적으로 정상인 대장점막에 대한 색소내시경의 유용성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. 대상 및 방법: 74명의 환자(남자 48명, 여자 26명; 평균 연령 53.0세)에서 색소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.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이유는 건강검진(21%), 설사나 무른변(14%), 변비(7%), 출혈(6%), 기타(14%) 등이었다. 맹장부터 직장까지 자세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후 내시경을 항문연으로부터 30 cm까지 다시 삽입하였다. 천천히 내시경을 빼면서 0.2% indigocarmine 용액을 대장점막에 골고루 살포하였다. 다시 내시경을 삽입하여 색소가 살포된 대장 점막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발견된 병변을 기술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. 결과: 색소살포전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30명(43.2%)의 환자에서 58개의 병변이 발견되었다. 조직학적 소견은 관상 선종 41개, 증식성 혹은 염증성 변화 14개, 선암 2개, 용모상 선종 1개였다. 육안적으로 정상적인 원위부 대장점막에 색소를 살포한 후 46명(62.2%)의 환자에서 176개의 병변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. 색소내시경 후 추가적으로 발견된 병소의 89.8%(158개)는 조직학적으로 증식성 혹은 염증성 변화를 보여주었으며 11명(14.9%)의 환자에서 발견된 17개의 병소는 관상선종이었다. 색소내시경 후 발견된 선종은 모두 편평하고 다소 돌출된 비용종형 병변였으며 평균 크기는 직경 2.6 ± 0.6 mm였다. 고도이형성을 보인 선종이나 선암 혹은 함몰형의 선종은 발견할 수 없었다. 색소내시경 전 선종이나 선암이 발견된 환자에서 색소내시경 후 추가적으로 선종이 발견된 경우는 24.0% (6/25)로 정상 대장 내시경 소견을 보인 환자에서 추가적인 선종이 발견될 확률인 12.2% (6/49)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($p=0.317$). 결론: 우리나라에서 내시경 검사상 정상으로 보이는 대장 점막에 indigocarmine을 살포하여 많은 환자에서 추가적으로 선종을 발견할 수 있었다. 색소를 살포한 후 발견되는 선종은 크기가 작은 비용종형 병변으로 고도이형성이나 선암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었다.

색인단어: 색소내시경, Indigocarmine, 선종